

# 급증하는 軍 여성 간부... 여군 선발·훈련 강화 ‘목소리’

흥기난동 사건에 여성불용론 고개 젠더 문제 아닌 훈련능력 탓 ‘반론’ 軍서도 체력검정 기준 놓고 시각차



지난 2015년 대구 수성구 무학로 대구지방경찰청 무학체육관에서 열린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신체·체력 검사에서 응시자가 윗몸일으키기하는 모습. /뉴스

최근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여성 경찰관이 사건현장을 이탈한 사이, 40대 여성이 칼에 찔려 뇌사상태에 빠진 참극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군대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여성불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만 ‘여성’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반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 ◆현장도주 경찰, ‘젠더’보다 ‘강한 훈련 부족’이 문제

실제로, 일선 경찰관과 군인들은 ‘젠더 문제라기보다 경찰과 군조직에 공통적으로 팽배해진 ‘행정주의’와 ‘선발제도 및 훈련의 문제’라고 평가했다. 경찰관과 군인 등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체력과 위기 대응 능력이 남녀 모두에게 필요로 한 직업이다. 그렇지만 정부의 정책이 양 조직의 본래 목적을 살리지 못하게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익명의 현직 경찰관은 22일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경찰 업무가 범인 체포 등 물리력을 쓰는 경우에 한정돼 있지 않다. 행정능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도

많기 때문에 여성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경찰관으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체력은 갖춰야 하는데 여성에 대한 기회부여 등을 이유로 체력의 최저선을 무너뜨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경찰관은 “해당 사건의 경우 선임인 남성 경찰관이 사고 빌라 밖에서 대기하는 모습 등을 미뤄볼 때, 선임자가 귀찮은 일을 후임에게 미룬듯 한 인상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여성 경찰관 선발 체력검정의 경우 무릎을 땅에 대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등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 날 정도로 체력검정의 기준이 낮다. 이런 문제로

인해 ‘여성 경찰관의 체력문제’와 함께 ‘여성경찰관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찰은 2023년 남녀가 동일한 체력검정을 받도록 선발기준을 바꿀 계획이지만 이 또한 ‘경찰관 체력의 하향평준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6월 순환식·남녀동일기준·P/F제(합격 및 불합격만으로 구분하는 제도)를 골자로 한 ‘경찰 남녀통합선발 체력검사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부터 일부 경찰관 채용분야에서 이 체력검사가 적용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남녀 공통으로 적용이 가능한 체력검사라 남자 경찰관의 체력

도 동반하락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군인 체력검정, 남성 9급보다 낮은데 1급 받는 여성

경찰관의 현장도주가 국지적 상황이라면, 전선을 이뤄 조직적으로 무장병력 간의 전투를 벌여야 하는 군대는 전장이탈을 우려해야 할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는 각 과정 별로 개선이 부분적으로 이뤄졌지만, 3년 전인 2019년의 경우 육군 장교 모집시 남녀 모두가 치뤄야 하는 ▲1.5k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등 3개 항목의 최저 합격선에서는 남녀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경우 1.5km 달리기에서 7분 29초 이상이 될 경우 등의 판정을 받지만, 여성은 7분 39초의 기록으로도 1급 판정을 받는다. 남녀의 차가 현격하게 발생하지 않는 지구력임에도 남녀의 차이를 크게 두고 있는 셈이다. 현재 장교 선발 체력검정 중 오래달리기는 남군 1.5km, 여군 1.2km를 달리는 것으로 거리 기준이 변경됐다.

전장에서 적군에 의한 위협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음에도 체력검정의 최저선이 크게 차이가 날 경우, 남성이 여성에게 발목이 잡힐 위험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고려해

체력검정의 상위 등급으로의 진출에는 배려를 해야 하더라도, 최저선마저 배려를 한다면 군 전체가 ‘약병화(弱兵化)’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육군의 A 중사는 “지휘관이 여군 부사관들은 이번 훈련에 군장 없이 총만 휴대하고 행군하라고 지시할 때 역량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면서 “총알과 포탄은 성별을 가리지 않는 데, 여성을 한명의 군인으로 키우기보다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만 본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육군의 B 대위는 “최근 수년 간 여성 간부의 비율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야전에서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전투로 인정하려는 인식개선은 더딘 것 같다”면서 “체력을 요구하지 않는 행정 업무와 부대관리 분야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못 할 이유가 없지만, 훈련과 작업 등 체력을 요구할 경우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최강이라고 알려진 미 해병대도, 체력적으로 약한 남성과 여성 군인은 후방 군수지원부대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여성을 배려한다면, 비전투병과를 군무원이 아닌 여성 군인으로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 韓-美 통상장관, 공급망·백신 등 공조 강화

美 무역대표부 대표 11년 만에 방한 여한구 “미국에 철강 재협상 요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

한국과 미국 통상당국이 공급망과 첨단기술, 백신 등에 대한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향후 글로벌 통상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앞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공급망, 첨단기술, 디지털, 기후변화, 백신 등 신통상 아젠다에 대해 한미 통상당국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앞서 지난 19일 오후 서울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복병이 되고 있는 공급망의 복원력과 안정성 회복, 디지털 경제·탄소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한미 통상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아울러 미국의 철강 232조 해결을 위해 조속한 협상개시를 요구하는 등 양국 주요 통상현안 해결에 미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여 본부장은 “최근 미국이 EU 및 일본과 협상을 타결하거나 개시한 만큼 우방국인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다시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전달했다”며 “미국 내 한국산 고급 철강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고 한국 제조업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급증하는 만큼 철강 232조 해결을 위한 조속한 협상개시를 지속 요청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경제통상 분야 각료가 한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이며, USTR 대표 방문도 2010년 11월 이후 11년 만이다.

여 본부장은 “최근 세계경제 회복의



2021 지속가능농업개발 위한 글로벌 ODA 포럼

22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호텔에서 ‘글로벌 푸드시스템

전환을 위한 농업 ODA 전략’을 주제로 열린 글로벌 농업 ODA 포럼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지난 9월 개최된 유엔 푸드시스템 정상회의에서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푸드시스템 전환 이니셔티브’들의 주요 내용과 향후 협력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뉴스

# 아스콘 입찰 담합 4개 협동조합 ‘적발’

공정위,대전·세종·충남지역 조합 과징금 42.7억에 검찰 고발하기로

조합들은 저가 투찰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고 구성원들에게 안정적으로 물량을 배분해주기 위해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 공고상 1개 조합이 낙찰받을 수 있는 수량은 전체 공고수량의 50%를 넘지 못하고 2개 이상 조합이 낙찰 받을 수 있는 수량 합계는 전체 공고수량의 8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 이들 조합은 각각이 전체 공고수량의 절반 이상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 조합 모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수량을 조정했다. 본조합의 경우는 입찰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3개 조합과의 합의 장소를 제공하고 합의 과정에서 투찰수량과 가격을 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실제 입찰에서 이들이 합의한 투찰수량과 가격대로 3개 조합이 낙찰을 받았다.

정부기관의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구매입찰에서 4개 협동조합이 담합한 것으로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과 함께 검찰 고발 처분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7년도·2018년도 대전·세종·충남지역 아스콘 연간단가계약입찰에서 담합한 4개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억 7400만원을 부과하고 4개 조합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전세종충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이하 본조합)과 3개 조합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2017년과 2018년 아스콘 연간단가계약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수량,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특고 고용보험, 5개월 만에 50만명 가입

보험설계사 29만명으로 가장 많아 방문 판매원·택배기사 順 뒤이어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험설계사가 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2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특고 고용보험 가입자는 총 50만3218명으로 집계됐

다. 올해 7월 특고 대상 고용보험 시행 이후 5개월 만에 50만명을 넘어섰다.

특고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사업주와 계약을 체결해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정부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만 적용하던 고용보험을 지난해 12월 예술인도 포함하던 이어 올해 7월부터 특고 12개 직종까지 확대했다.

12개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등이다.

고용보험 가입 후이들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중 보험설계사가 29만719명(57.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문판매원 5만3062명(10.5%), 택배기사 4만6946명(9.3%), 학습지교사 3만7800명(7.5%) 순이었다.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규모가 큰 직종별로 가입자 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